

비·얼음·수증기로 끝없이 윤회



물은 자연과 신체의 생태계를 순환한다. 지구의 75%, 신체의 65%가 물로 되어 있고 천연수엔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 있다.

리 신체를 구성하는 물은 자연의 물로부터 유래하고, 자연의 물은 이미 지적했듯이, 수억만년을 두고 우리 자신의 신체를 순환한 물로, 그리고 적어도 한번은 우리 각자가 흘린 눈물이었던 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은 자연의 생태계에서 다른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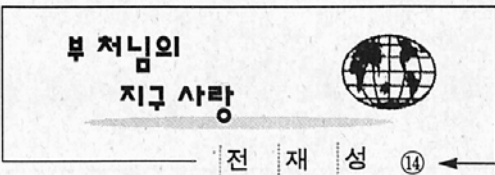
만 아니라 현재 수도법에 의한 응용수의 수질 기준에는 1cc당 일반세균 천마리 이하이지만, 천연수 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으며, 미량의 유기물이라도 있으면 세균수는 1cc당 수백마리 이상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 신체의 물 가운데 예를 들어 1cc의 침속에도

의 총량은 14억마리이며 지구표면이 평평하다면 3,000km의 수직으로 전지구를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물은 끝없이 순환하고 있다. 물의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강, 호수, 하천, 빙원의 물이다. 이 가운데 연간 증발과 강우 등으로 순환하는 물의 양은 육지의 담수량의 다섯배 가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은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로, 대기중에 증발되어, 기온이나 기압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물(수증기·안개)이나, 액체의 물(비·이슬)이나, 고체의 물(얼음·눈·우박)로



◇물교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물비니 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이익선씨(KBS 기상캐스터)가 지난 13일 방송 중에 '우리는 물지킴이' 스티커를 소개,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물의 순환

부처님은 자연의 물이 구성하는 생태공동체를 외수계(外水界)라고 하고 우리 자신의 신체의 물이 구성하는 생태공동체를 내수계(內水界)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셨다. "벗들이여, 무엇이 물의 세계인가? 물의 세계에는 내수계와 외수계가 있다. 벗들이여, 무엇이 내수계인가? 벗들이여, 내적이고 개체적인 것인데,

물이나 유동적인 것이며 취착된 것으로, 즉 담즙, 가래, 고름, 피, 지방, 눈물, 입과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 그 밖에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내적이며 개체적인 것인데, 물이나 유동적인 것으로 취착된 것을, 벗들이여, 내수계라고 부른다. 이 내수계와 외수계를 보았을 때 물의 세계라고 한다." 물의 생태계는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와 신체의 생태계를 순환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 물의 75%가 호수·강·하천·해수(海水)로 되어있고, 우리 신체의 65%가 물로 되어있다. 우

몸에선 피·오줌·눈물되어 신진대사 촉진

땀, 땀, 비땀, 생명의 공동체를 수반하면서 천류한다. 자연의 천연수에는 적어도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땅의 성분인 각종 미네랄이나 광물질을 위시해서, 바람의 성분인 산소나 탄산가스나 생명의 성분인 유기물질 등이 용해되어 있고, 불의 성분인 적철한 온도가 그들을 안정상태로 유지해주고 있다. 뿐

약 5억마리의 세균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은 외수계와 내수계를 순환하면서 조화롭게 다른 모든 생태계를 수반하면서 천류한다. 자연의 물속에서는 순수한 물인 증류수만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요소와 더불어 사는 물의 생태공동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지구표면의 3/4은 수면이고 물

상태를 변화시켜 계속 협곡 지류 호수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며, 바닷물은 다시 증발되어 순환을 되풀이하며 천류한다. 또한 생물체내에 흡수되었을 때에는 다른 땅·물·바람 생명현상과 더불어 신진대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시 생체내를 순환하며 천류한다.

'새문명 새인간' 됩시다

생명운동아카데미 강좌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수질, 대기, 폐기물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이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가치관과 생활철학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기존의 반생명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생명가치를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이란 슬로건으로

생명운동 아카데미를 연다. '현대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환경교육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강의와 토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 (02)765-6324

온누리 넘칠 마음의 소리 어울린 연꽃합창단 모집

마음의 소리를 선율에 담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다. 그 마음의 참소리를 한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오는 6월부터 30세~63세 이하의 여성불자들이

신행수첩



◇비다가 굽어보이는 절경의 위치에 자리한 낙산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이다.

"아픈 사람들 다 오세요"

약사보살이 기다립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전문물리치료실 운영

육체의 건강은 정신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맑고 활기차다. 나이가 들어 허리, 팔다리가 추시고 아픈 것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을 약사보살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물리치료실이 개설됐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문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진료료는 55세이상 남녀노인과 주민은 근육통, 관절염 등의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다. (02)817-8052

대상으로 연꽃합창단을 모집한다. 부처님의 위대한 덕을 음성공양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여성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2)738-5586

행복의 발 가꾸세요

간병인 교육생 모집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가꾸는 발이 된다.' 범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불교간병인협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간병인활동 및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8기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산모의 신생아 간호법' '중풍 치매환자 간호법' '환자와 간병인의 대화법' '응급처치법' 등 총 21개 강좌가 개설된다. 간병을 통한 불교의 자리 이타를 구현해 나갈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02)725-4490

한계령 넘어 관음상 천견

신행연 불교문화기행

녹음이 우거진 한계령을 넘어 여정에 지친 육신을 오색약수터에서 잠시 휴식하고 저 멀리

수평선너머 불국토를 굽어보는 해수 관음상 앞에서 다함께는 파도속에서 띄워보내자. (02)587-6613

배움의 보람 해방의 기쁨 무료한글학교 열어

배움으로 의로움과 번민을 맑고 시원하게 씻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흔히 물 물 물 곳이라도 마음 들 곳은 없다고 말하곤 한다. 과연 스스로 의로워하고 힘겨워 번민하면서 살아가는게 인생일까? 자기의 번민과 기쁨을 배움으로 토해내 보자. 불교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 진주불교회관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문맹인이나, 배움의 기쁨을 느껴보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한글학교를 개최한다. 배움으로 스스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해 보는 것도 햇빛 좋은 날 의미있는 일일듯 싶다. (0591)747-0108

흥겨운 굽거리 한마당

개강복지관 민요교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가득 담겨진 구수한 전통민요 및

흥겨운 어깨춤은 모든 시름을 잊게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각종 복지, 문화 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개강사회복지관(관장 범산선)은 오는 15일 복지관 강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민요교실을 개강, 흥겨운 한 때를 같이 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여주

월간 '해인', '대중불교' 동참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 활발

월간 '해인'(발행인 일타스님)은 지난주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4천매를 '해인'지와 함께 발송, 각 가정 현관이나 대문에 부착케 했습니다. 월간 '대중불교' 등 교계 월간지들도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자가정' 스티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날씨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분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 | | |
|--|---|
|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 단체 |
| 장 김조현) △미주불교방송(이사장 정산) △백화도량(법사 김효성) △경주사포교원 불자의 집(대표 대영) △대한불교 달마회(회장 김경복) △파주 보광사(주지 효민) △자비의 집(대표 동광) △대승불자회(회장 이영기) △은평구 수선사(주지 경진)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충남불교대학(학장 정태혁) △광천사(주지 성정) △(재)한국불교 태고원(이사장 이규범) △불교방송 음악회(회장 이현정) △불교문화센터(법사 신진욱) △공공문화재단 교직원 △선원사(주지 성원)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청오사(주지 무공) △한국방송공사 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 △삼천사 가족교회(회장 신장호) △사천왕사 밝은누리 청년회(회장 허무용) △현대연지니어링 불교연구회(회장 김광덕) △직지사(원주 보문) △경포 인일사 △경기 청명사 △강서구 의왕사 △동신기업 △한양예전 불교 동아리 가연 △충남 천불암 △충남 흥국사 △경기도 용산사 △강원도 도솔사 △백골사(주지 정안) △경기 불화사 △충북 영축사 △경기 육화정사 △삼척 삼산사 △천안 천불암 | |
| 개인 | △장학수 △박명희 △정석규 △황환중 △김진아 △김재권 △김진명 △이진우 △장문순 △박규열 △윤창욱 △김희정 △박영애 △김병호 △박기선 △김만복 △최광명 △정용환 △박광호 △진정규 △조상훈 △김철환 △양병용 △김형중 △박명희 △이훈주 △김희용 △윤서영 △조경은 (무수) |
|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 |
| 국민은행 023-25-0007-617 | |
|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 |
| 전화 737-8881, 722-4162 | |
| 팩시 737-0698 | |

생활 속의 불교 28

놓으면 살고 붙들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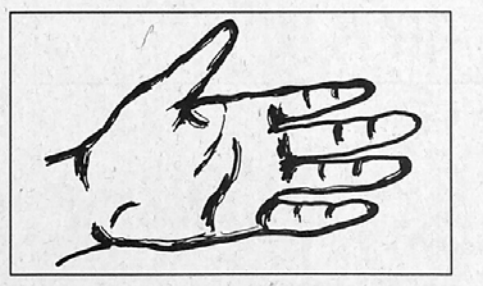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빈 손 들고 이 세상에 나왔다. 빈 손으로 와서는 평생을 기울여 그 빈 손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산다.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쫓으려고 애를 쓴다.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일정한 게임법칙을 준수하는 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욕망이 지나쳐 권력을 향한 집념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명예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나의 삶은 그로부터 노예와 다름없게 된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할 돈·권력·명예가 어느 새 주인이 되어 내가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인간이 그 무엇의 쓰임새가 되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이해, 대수롭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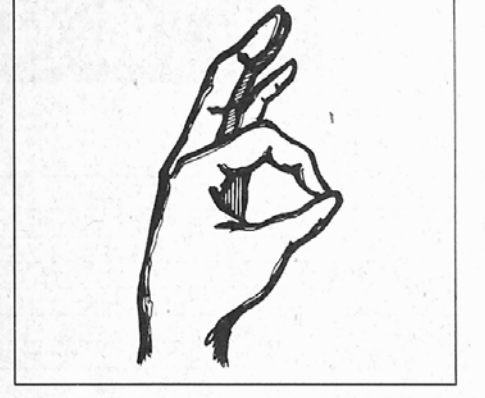
일들,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나를 얻어매는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다. 가령 새 옷 한 벌 해 입었을 때 내가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새 옷이 나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허다하다. 빈 손을 채워야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쌓이고 쌓여 나를 주인 자리에서 하인 자리로 밀어내린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먹었으면 배설해야 한다. 먹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 이치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가졌으면 주어야 하고 쥐었으면 펴야 한다.

갖는 도리만을 좇아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혹 평생을 쥐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 때는 삶어도 다 놓고 빈 손으로 간다. 울 때 그러했듯이 갈 때도 빈 손이다. 고로 주는 도리를 좇아 사는 게 주인된 삶이다. 갖는 도리는 노예의 길이고, 주는 도리는 주인의 길이다.



갈 때 이차피 빈 손일 수밖에 없으니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는 일시적인 관리자이다. 그러기에 불가에서는 본래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친다.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한다. 대장부다운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라고 한다.



이 세상에 빈 손 들고 나와서 나그네 생활로 살다가 빈 손, 빈 몸으로 간다. 그렇게 한 철 사는 동안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는 문제는 집착·아상 따위를 여의고 사느냐, 내 것이라 움켜쥐고 조막손의 삶을 사느냐로 판가를 난다. 놓으면 자유요, 집착하면 노예다. 놓아버린 자는 살고 붙든 자는 죽는다.

협찬 : 마산 범형제회